

염상섭의 초기 신문연재소설과 '문학저널리즘' 인식*

—『진주는 주었스나』를 중심으로—

권동우**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본격소설'에의 지향과 '문학저널리즘' 인식
- III. '리얼리즘'의 구현과 독자욕망의 재배치
- IV. 결론을 대신하여-‘감각(感覺)의 세계’를 넘어서

【국문초록】

수많은 질적·양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의 문학세계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만세전」 이후 『삼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신문연재소설에서 발견되는 작품의 '통속화' 경향에 관한 것이다. 본고가 다루려는 부분은 일련의 신문연재소설에서 흔히 '통속성'의 핵심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당대 '신청년'들의 '자유연애' 사상과 그에 얽힌 풍속 및 세태를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 작가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다. 1920년대 초중반 염상섭이 신문연재소설에 대해 지녔던 감각, 그것은 곧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대변하는 '저널리즘'과 그에 대한 지식인 작가로서의 고민, 거기에 더해 기자라는 직업이 낳은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통속문학'과 동의어로 인지되던 '저널리즘문학'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다른 '문학저널리즘'의 관점으로 이 시기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

* 이 논문은 제318차 한민족어문학회 하계전국학술대회(2014. 8)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학저널리즘'의 개념에는 '작가·작품·매체·독자' 사이에 형성되는 일종의 긴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문학'과 '저널리즘'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작가의 매체에 대한 이해, 매체의 작가에 대한 요구, 그리고 작가의 독자(육망)에 대한 고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방법론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염상섭, 신문연재소설, 통속성, 매체, 저널리즘, 문학저널리즘

I. 들어가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염상섭은 다작의 작가이기도 하고, 문학계에 막 발을 들여놓던 1920년대로부터 1950년대까지 꾸준히 다수의 장편소설을 창작해 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장편소설은 『무현금』과 『홍염』 등을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당대의 장편 대부분이 그렇듯 '신문연재'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염상섭이 신문연재소설로 첫 선을 보인 작품은 40회 분량의 중편인 『해바라기』라는 작품이었다. 『해바라기』의 연재가 끝나 바로 다음날부터 같은 지면에 『너희들은 무엇을 어뎠느냐』라는 작품을 129회에 걸쳐 연재함으로써 비로소 염상섭의 장편소설은 시작된다.¹⁾ 이후 그는 만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동아일보를 비롯해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등

1) 『동아일보』에 나란히 연재된 두 작품 중 『해바라기』는 1923년 7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연재되었고, 『너희들은 무엇을 어뎠느냐』는 1923년 8월 27일부터 1924년 2월 5일까지 연재되었다. 한편, 염상섭 장편소설의 출발점에 대한 의견은 논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한 예로 이현식의 경우 실질적으로 장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소설을 1927년 작 『사랑과 죄』로 보고 있으며, 『너희들은 무엇을 어뎠느냐』의 경우 주인공과 중심 갈등의 불분명함, 작품 전후반부의 단절이 장편소설로 보기 힘든 요인이라 밝히고 있다. 이현식,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문학-일제하 장편소설』,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p.103.

에 매년 빠짐없이 작품을 연재하여 『二心』이나 『삼대』 등의 문제작들을 만들어낸다. 해방 후에도 이러한 그의 창작열은 식지 않고 『취우』, 『젊은 세대』와 같은 장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작과 문제작들로 문학사에 분명한 흔적을 남긴 만큼 염상섭에 대한 연구는 미처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다종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만을 몇몇 언급하자면 우선, 작가사상 및 문학세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한 것으로 김윤식과 이보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윤식의 『염상섭 연구』²⁾의 경우 염상섭에게서 발견되는 '중산층 서울 토박이의 보수주의'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작품 활동 전반을 살핀 것으로 유명하다. 이보영은 『난세의 문학-염상섭론』³⁾에서 해방 이전으로 논의의 범주를 제한하고, 이 시기 염상섭의 문예는 한마디로 식민지기 민족적 수난과 고통에 따른 '난세의식'의 발현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문화적 성격'으로의 도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식민지적 근대 안에서 '민족'을 화두로 한 염상섭 작품의 민족주의 및 리얼리즘적 특징을 밝힌 90년대의 연구들⁴⁾을 비롯해서, 풍속사적 관점에서 염상섭의 여성 인식 및 연애담론 등을 살핀 비교적 최근의 연구⁵⁾까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수많은 질적·양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상섭의 문학세계에서 아직 뚜렷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만세전』(1922)

2)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3) 이보영, 『난세의 문학-염상섭론』, 예림기획, 2001.

4) 문학과사상 연구회에서 펴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깊은샘, 1998)에 실린 일련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5) 공종구, 「염상섭 초기소설의 여성의식」, 『한국언어문학』 제7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이광수,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후 『삼대』(1931)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신문연재소설에서 발견되는 작품의 ‘통속화’ 경향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 방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중 최혜실은 『사랑과 죄』와 『백구』를 대상으로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백금반지 모티프의 상투적인 사용이 ‘타락한 카타르시스의 전형’이라 결론짓고, 궁극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윤리관을 통해 독자들의 가짜욕망과 만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⁶⁾ 조남현은 「갈등론으로 본 염상섭의 <사랑과 죄>」에서 염상섭이 1920년대로부터 이미 ‘통속적인 것의 견인력’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랑과 죄』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가치관 충돌이 작가의 사회의식과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결국 그는 염상섭의 이러한 ‘이념소설에의 지향’이 작품을 단순한 애정물이나 연애소설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됨을 밝히고 있다.⁷⁾ 이렇듯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통속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작품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한편과, ‘통속’과 ‘이념’이라는 양가적 관점 중 후자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높게 사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 김경수의 논의⁸⁾는 이러한 앞서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1920~30년대 염상섭의 문학론을 점검함으로써 ‘통속소설’에 대한 작가적 견해의 성립 위에 일련의 작품들이 창작되었음을 밝혀두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심』(1928), 『백구』(1932), 『모란꽃 필 때』(1934)와 같이 기존의 통속성

6) 최혜실,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국어국문학』 제108권, 국어국문학회, 1992, pp.209-225.

7) 조남현, 「갈등론으로 본 염상섭의 <사랑과 죄>」,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pp.45-68.

8) 김경수, 「염상섭의 통속소설 연구-『이심』, 『백구』, 『모란꽃 필 때』를 중심으로」, 『서강어문』 제11집, 서강어문학회, 1995.

연구와 관련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작품에 집중되어 있어 염상섭의 초기 신문연재소설의 작품경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 한기형은 『만세전』 이후 『삼대』에 이르기까지 발견되는 염상섭 소설의 통속성을 다분히 식민지적 조건과 한계를 인식한 서사전략의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⁹⁾ 이상의 두 연구는 앞서의 연구들과 달리 특정한 비판과 긍정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서도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이 지니고 있는 '통속소설'로서의 성격 그 자체의 의미를 작가의 자의식으로부터 발견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이 꾸준히 보여준 '통속성'의 특징과 의미를 '신문연재'라는 형식에 대한 작가적 이해가 반영된 '문학저널리즘'¹⁰⁾의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

9)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 제8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pp.175-208.

10) 지금껏 '문학저널리즘'이라는 용어 및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기존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한 이 방면의 연구 역시 주로 '저널리즘문학'에 관한 것으로 '신문연재'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통속문학' 또는 '대중문학'의 틀 안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때의 '저널리즘문학'이라는 용어 역시 사실상 '통속/대중문학'과 동의어로 인지됨으로써 실질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상 '저널리즘문학'과 '문학저널리즘'은 어휘배열을 달리할 뿐 뚜렷하게 구분하기 모호하기도 하거나와 차이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흔치 않다. 하지만 본고는 두 용어를 구분해서 보려 하며, 특히 후자인 '문학저널리즘'의 개념에 좀 더 천착해보고자 한다.

흔히 '저널리즘문학'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완결된 문학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문·잡지와 같은 매체에 실린 문학작품 전반을 지칭함으로써 단정적이고 닫힌 개념에 가깝다. 이에 비해 '문학저널리즘'은 우선 문학 작품과 독자의 만남에 매개가 되는 잡지나 신문의 매체로서의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열린 개념에 좀 더 가깝다. 문학의 관점에서 '저널리즘'이 지닌 대중적 속성을 포함하여 지식이나 정보, 사상이나 견해를 담아내는 일종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를

초중반 염상섭이 지녔던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는 곧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대변하는 ‘저널리즘’과 그에 대한 지식인 작가로서의 고민, 거기에 더해 ‘기자’라는 직업이 낳은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다. 즉 작가로서 초창기 그의 세계관과 창작방법론은 작품의 발표 지면인 매체를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들에 대한 복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1920년대 염상섭의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해당 시기는 물론 해방 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평문 및 수필로부터 확인해보고, 나아가 그렇게 형성된 신문연재소설의 창작세계관은 실제 작품 속에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격소설’에의 지향과 ‘문학저널리즘’ 인식

주지하다시피 ‘저널리즘’¹¹⁾이란 단일 개념은 ‘통속성’이나 ‘대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문연재소설에 관한 ‘문학저널리즘’의 개념 역시 이러한 문제, 다시 말해 ‘통속/대중소설’에 관한 담론과 그에 얽힌 문제

활용한 문학작품의 지향점이 해당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학저널리즘’이라는 용어에는 ‘작가·작품·매체·독자’ 사이에 형성되는 일종의 긴장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려 한다. ‘문학’과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작가의 매체에 대한 이해, 매체의 작가에 대한 요구, 그리고 작가의 독자(육망)에 대한 고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방법론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신문연재소설을 분석해내는 작업은 기존 ‘통속성’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작품 분석의 의미망을 넘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1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저널리즘(journal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고 있다.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 넓게는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정보 및 오락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의식을 떠안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그에 관한 대개의 담론과 문제 의식은 ‘통속/대중소설’을 ‘본격/순수소설’의 대타향으로 설정해 흥미위주의 상업적 독서물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다.¹²⁾

논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통속’이라는 말은 영어 popular 및 common 과 유사하게 중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것이 “때로는 공통적인 것을, 때로는 저급한(vulgar)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며, 따라서 “‘통속’ 개념의 역사를 추적하는 작업은 ‘공통적인 것’과 ‘저속한 것’의 경계를 탐색하는 일”이 된다.¹³⁾ 대개의 경우 ‘공통적인 것’은 ‘대중성’에 결부된 것으로, ‘저속한 것’은 ‘통속성’과 좀 더 가까운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문연재소설을 대하는 대개 작가들의 경우 ‘통속성’ 및 ‘대중성’에 결부된 부차적 의미나 사회적 통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창작에 임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상업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신문·잡지의 성격에서 불거진 ‘상업성’에 대한 고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상의 문학저널리즘에 얽힌 내외부적 시선 외에도 당시 염상섭에게는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을 비롯해 신문사 측의 직접적인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① 개인으로도 순전히 문학에 정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을지, 거개가

12) 이러한 ‘통속/대중’과 ‘본격/순수’의 이항대립이 낳은 소위 ‘고급/저급’의 문화적 취향 구분과 그에 따른 위계화 및 서열화 관습의 폐단은 이 방면의 오래된 논란거리이기도 하고, 실상 ‘통속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의 가치 재고에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하지만 본고가 그러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논의의 범주가 확장되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통속/대중소설’에 관한 일반론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3)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85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p.42.

직업인으로서 문학은 여기요, 부업이었다. …(중략)… 하고보면 문단생활 근 30년이라 하여도 문학을 집어치우고 순직업인으로 만주에 나가 있던 8, 9년을 제외하고 약 20년 가까운 문필생활을 하였다 하여 시간으로나 분량으로나 그 3분의 2 넘어서는 신문잡지의 기사이었을 것이요, 겨우 3분의 1이 문학적 노력이었을 것인데, **그나마 먹기를 위한 잣단 돈뎀에 팔려 쓴 것이었다 하겠다.** 문학 하였다고 작가생활이라고 큰소리를 칠 건더기가 없다.¹⁴⁾(강조: 인용자)

- ② 그러나 내 경우에는 발표욕이 문제가 아니라, 성근(誠勤)도 남만 못한데다가 당장 먹고 살자니 붓대부터 들게 되고마는 것이다. …(중략)… **10여년 전, 만주로 떠날 제 결심은 밥걱정이나 안 하게 될 때 까지 공부나 하며 그 실(實)답지 않은 고료생활을 면하게끔 되거든 다시 창작의 붓을 들겠다는 것이었으나 그 역(亦) 꿈이었다.**¹⁵⁾(강조: 인용자)

해방 후 지난 문단활동 초기에 있었던 작가로서의 고충을 회고하는 글이라 어느 정도의 가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의 두 번째 인용에서 염상섭이 밝힌 소위 ‘고료생활(稿料生活)’이라는 표현은 작가로서의 고충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자신의 작가생활 전체를 통틀어 ‘매문(賣文)’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작가로서의 자괴감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발언들이 중견작가로서 지나친 겸사(謙辭)에 해당하는 것이긴 해도 실질적으로 신문연재소설을 막 써내기 시작하던 1920년대 당시의 작가적 내면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1923년부터 다음해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너희들은 무엇을 어뎠느냐』라는 작품에서 염상섭은 그의 분신으로 등장하는 ‘김중

14) 염상섭, 『나의 소설과 문학관』(『백민』, 1948.10),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Ⅲ, 소명출판, 2014, pp.107-108.

15) 염상섭, 『나의 문학수련』(『문학』, 1950.6), 위의 책, pp.192-193.

환'의 입을 빌려 “사람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자기의 직업을 예술화(藝術化)해서 그 직업이 곧 자기의 생활내용(生活內容)이 될 수 있다 할 디경이면 그것처럼 행복스러운 것은 없겠지요”¹⁶⁾라고 하여 이러한 고민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곧 직업인이자 생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취한 신문연재소설의 창작이 작가로서의 순수한 문예활동과 충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적잖이 고통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목할 것은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 창작에 대한 고민은 위의 내용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소위 ‘본격/순수소설’의 필수조건으로써 ‘예술미’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1920년대 초반부터 “진정한 예술적 내용이 될 만한 ‘예술미’와 쾌락적 표현인 ‘쾌미(快美)’¹⁷⁾를 엄밀히 따져 구분하고 있었던 그로서는 생활인의 자리에서 통속 및 상업성이 부각된 작품을 쓰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감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상 염상섭이 지닌 이러한 고충은 문단에 발을 들여놓던 1920년대 전반기부터 일종의 이상향으로 자리잡은 그의 ‘모탈’에 뿌리를 두고 있다. 흔히 초기 3부작으로 분류되는 작품 중 자기반성적 서술로 유명한 『암야』(1922)에서 염상섭은 “생활을 유희하고, 연애를 유희하고, 교정(交情)을 우롱하고, 결혼 문제에도 유희적 태도…… 소위 예술에까지 유희적 기분으로 대하는 말종”¹⁸⁾이라고 하여 이미 문학예술에 대한 지고지순의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¹⁹⁾

16)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권영민 외 편, 『염상섭전집』1, 민음사, 1987, 215면. 단행본이나 전집으로 엮이지 않은 『진주는 주었스나』를 제외하고 앞으로 본고의 작품 인용은 모두 1987년 판 민음사 전집을 기본으로 하며, 본문 또는 각주에 작품 제목과 해당 전집의 권수 및 면수만 따로 표기.

17) 염상섭, 『개성과 예술』(『개벽』 제22호, 1922.4),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I, 소명출판, 2014, p.198.

18) 염상섭, 『암야』, 『염상섭전집』9, p.55.

이처럼 끈질기게 본격소설을 지향하고 ‘예술미’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내면에 크게 자리한 가운데, 신문연재소설이 당면하고 있던 ‘통속성’이나 ‘상업성’에 대한 요구, 나아가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곧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염상섭의 작가적 이해를 따지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아래 인용에서 ‘통속소설’ 및 ‘본격소설’의 지위와 조선의 현실적 조건을 논하는 그의 관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 ① **소위 신문소설, 통속소설을 쓸 때에는 독자의 계급적 성질과 교양의 최고·최저점과 평균점이라는 것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자기는 동호자(同好者)끼리를 위한 소설과, 중학교 3,4학년 생도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 통속소설을 쓴다는 답안에 도달하였다.** 어찌하여 그러하나? 여기에 대한 설명은 문예와 계급적 관계를 제시할 것이요, 아울러서 조선의 현상(現狀)은 얼마한 정도의 문예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²⁰⁾(강조: 인용자)
- ② …… 만일 우리 사회에 **고급작품을 목표로 한 순문예지**라든지 권위 있는 간행물이 있고, 또 각성한 출판업자가 있다 하면 다대한 자극과 공헌이 있겠으나, **완전한 문예지 하나도 없이 저급의 신문소설만이 문예의 전체요** 구소설이 여전히 견실한 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중의 요구가 그에서 더 나가지 못한 까닭인지, 또는 작가의 미숙으로 민중은 기대 요구하되 이에 응치 못함인지 생각하여볼 일이다.²¹⁾(강조: 인용자)

19) 초기 단편을 비롯해 이어지는 일련의 장편소설에서도 꾸준히 문학예술을 향한 염상섭의 지고지순의 감정과 순수예의 갈망을 엿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줄고 『예술과 연애, ‘순수’예의 동경-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를 중심으로』(『동아인문학』 제27집, 동아인문학회, 2014, pp.137-169.)에서 다룬 바 있다.

20) 염상섭,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전7회, 『동아일보』, 1928.4.10.~4.17), 『염상섭 문장 전집』 I, p.698.

먼저 '통속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는 '통속소설'을 '본격소설'에 닿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앞서 김경수 역시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까지 걸쳐 염상섭이 발표한 일련의 평문들을 분석하여, '통속소설'에 대한 염상섭의 판단이 결국 "과도기적인 소설의 한 유형"임을 자각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²²⁾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작가로서 염상섭의 궁극적 지향점을 외면하는 결과를 불러오거나, 막연한 절충주의적 관점에만 의의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 즉 '순문예지'나 '완전한 문예지'에 대한 그의 갈증이 보여주듯 '통속소설' 이후에 올 '본격소설'에 문학예술의 본령을 두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 1920년대 염상섭의 통속소설에 대한 가치판단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더욱 주효하리라 본다. 그가 보여준 통속소설에 대한 일부 긍정적 시선은 당시 민중(대중독자)의 '독서력(독서열 및 독서욕)'을 감안한 절충적·현실태협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긍정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통속소설을 본격소설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염상섭이 일시적으로 통속소설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에는 "대중의 문예화를 안목(眼目)으로 하고 문예의 대중화를 경계"²³⁾하고자 했다는 점은 이를 더욱 여실히 보여준다.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중의 '독서력'에 대한 그의 판단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저널리즘'의 한 축이 작가와 독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긴장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염상섭이 독자의 '계급적

21) 염상섭, 『소설과 민중-『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의 속론』(『동아일보』, 1928.5.27.~6.3), 위의 책, p.722.

22) 김경수, 『염상섭의 통속소설 연구』, pp.185-195 참고.

23) 염상섭, 『농촌청년의 독물』(『매일신보』, 1934.8.22.~8.23), 한기형·이혜령, 『염상섭 문장 전집』Ⅱ, 소명출판, 2014, p.399.

성질'이나 교양의 고하(高下) 및 평균점을 따져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로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을 따짐으로써 내린 결론이지만, 독자의 감상력 수준을 고려한 소설 창작은 작가의 자유로운 사고의 발전과 세계관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민중이 소설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교화적 요소가 아니다. 재미있는 것, 일시적 흥미를 만족시키는 것”²⁴⁾이라는 염상섭의 정세 판단은 자신의 문학적 지향과 독자대중의 요구 사이에 놓인 간극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독자들의 요구에 맞는 소설을 써 나가는 매 순간은 평소의 작가적 이상에 반하는 스스로의 모순된 처지를 자각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와 독자의 엇갈린 욕망 사이에서 염상섭이 취한 태도는 절충주의적인 것이었다 할 때, 스스로 떠안은 모순과 고민을 과연 그는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기형은 이를 “아속(雅俗)의 균제”라는 염상섭의 소설미학으로써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그에 따르면 『만세전』 이후 소설에서 나타난 ‘통속성’은 식민지 노블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한 서사전략이며, ‘데모크라시’ 정신의 소산이라는 것이다.²⁵⁾ 이처럼 ‘아속절충’의 장 안에 염상섭의 장편을 위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과도기적 형태로서 통속소설의 지위를 인정하던 염상섭의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의 신문연재소설에서 ‘속(俗)’의 충위를 담당한 것은 문학의 오래된 주제이기도 한 ‘사랑’과 관련된 서사이며, 이에 한층 독자들의 ‘흥미를 만족’시킨 것은 당대의 자유연애에 관한 담론과 그에 얽힌 일련의 ‘스캔들’이었다.²⁶⁾

24) 염상섭, 『소설과 민중-『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의 속론』, 『염상섭 문장 전집』 I, p.720.

25)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참고.

26) 1923년의 『해바라기』로부터 이어지는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 『진주는 주었스

반면 본격소설로서 '아(雅)'의 요소를 갖추는 문제는 우선 작가 스스로 통속성과 구분되는 '예술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1920년대 본격소설이 지향하는 '예술미'에 대한 염상섭만의 독자적인 판단 지점이 드러난다. 그는 '생활과 현실'에 대한 묘사를 강조하며 문예의 본질, 나아가서는 근대적 소설문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얼리즘'의 문제로 되돌아감으로써 '통속성'과 구분되는 '예술미'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점이 문예의 보편성과 동일히 문예의 개성·민족성·계급성을 용인케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논의할 바도 아니지만은, 동시에 '순객관'이라는 말은 예술상에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다만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서 객관을 주장(主尙)하는 것은, 작가의 의식적 태도에 그치는 것이요, **어떠한 작품이든지 작가의 생활과 및 작가의 생활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시대정신과 생활감각 및 생활의식이라는 액즙으로써 반죽되지 않은 것이 없다.** …(중략)… 인간이라는 배우가 현실 위에 올라서서 살찌고 가로퍼진 늙은 희극을 연출하고, 마르고 세(縱) 자란놈은 비극을 실연(實演)하는 것이요, 그 연출법에 의하여 '그 시대인은 그 발판인 현실을 어떻게 지배하여가는가? 어떻게 지배되는가? 또는 어떻게 지지하는가? 혹은 어찌하여 타파하려 하며 어떻게 개조하여 가는가?'를 **(예술적 방향으로) 문자로 묘사하고 (간접적 수단으로) 사상과 의지로 주장하여, 동일한 시대의식과 사회환경과 생활감정을 가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하고 가치 있는 문예요,** 그 이외의 것도 아니며 그 이상의 것, 혹은

나』와 같은 작품이 나혜석이나, 김원주 등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였다거나, 당시 일본과 조선 신청년들의 연애사건과 관련된 스캔들을 소재로 창작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수의 『현대소설의 형성과 스캔들-황보의 <진주는 주었으나>를 중심으로』(『국어국문학』 제143집, 국어국문학회, 2006)를 비롯해, 최미진·임주탁의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²⁷⁾(강조인용자)

일반적으로 저널리즘 역시 절대객관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보도의 일차적인 핵심은 객관성, 즉 ‘사실(fact)’의 전달이다. 물론 염상섭은 이러한 저널리즘 상의 특징을 문학예술이 갖추어야 할 리얼리즘의 핵심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때의 판단은 문학작품이 객관성을 담보한 ‘사실(fact)’이 아닌 ‘허구(fiction)’라는 단순한 상식에 의해 내려진 것도 아니다. 즉 “인생생활을 묘사하고 보고”하는 문제를 넘어서 “(예술적 방향으로) 문자로 묘사하고 (간접적 수단으로) 사상과 의지로 주장하여, 동일한 시대의 식과 사회환경과 생활감정을 가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하고 가치 있는 문예”라는 염상섭의 판단에는 “인생 그대로가 아닌 인생을 재료를 하여 다시 만든 것”²⁸⁾이라는 리얼리즘 문학의 핵심이 담겨있으며, 나아가 단순한 저널리즘이 아닌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이상이 담겨 있다. 애초 ‘저널리즘’ 역시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의 전달을 넘어 의견과 해석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때, 염상섭이 주장하고 있는 리얼리즘 정신이야말로 이러한 문제와 결부되어 비로소 ‘문학저널리즘’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염상섭의 판단처럼 ‘시대정신’ 또는 ‘생활감각’을 ‘예술적 방향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곧 ‘본격소설’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때, 한편에서 이를 가능케 했던 힘은 그의 문단생활 대부분을 함께 한 ‘기자’라는 직업이었다. 염상섭이 자신의 ‘고료생활’을 한탄하고, ‘직업의 예술화’를 꿈꾸며 문학자로서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상 소위 ‘기자 노릇’과 ‘작가 노릇’이라는 분리 불가능한 두 역할 사이에서의 부침(浮沈)에 기인한다. 김윤식

27) 염상섭, 『문예와 생활』(『조선문단』, 1927.2), 『염상섭 문장 전집 I』, pp.543-544.

28)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142면.

은 염상섭의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다루면서, 김동인의 '창조파'에 맞서 조직한 '폐허파'의 시작,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직을 그만두고 오산학교 교원으로 가는 시점이 곧 본격적으로 염상섭이 작가 노릇을 시작한 지점임을 논한 바 있다.²⁹⁾ 하지만 거의 평생에 걸쳐 두 역할을 감당해내던 그가 어느 한쪽, 즉 작가로서의 역할에 몰두한다 해도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신문연재소설'의 경우 기자로서 몸담고 있던 '신문'이라는 매체에 작품을 창작하여 신게 됨으로써 그러한 기자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에서는 작가로서의 '예술인'과 기자로서의 '직업인(생활인)'이라는 정체성이 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진주는 주었스나』와 같은 작품에서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세계관(주의, ism)으로서 '리얼리즘'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곧 1920년대 염상섭의 '문학저널리즘' 인식의 일단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Ⅲ. '리얼리즘'의 구현과 독자욕망의 재배치

『진주는 주었스나』(이하 『진주』로 약칭)는 '동아일보'에 1925년 10월 17일부터 다음해 1월 17일까지 86회 분량으로 연재³⁰⁾되었으며, 1926년 재도일 직전까지 집필한 소설로 염상섭 초기소설의 특징을 다방면으로 담고

29)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의 『염상섭 연구』 제1부의 4, 5, 6장 참조.

30) 동아일보지에 기록된 『진주』의 최종 연재횟수는 '86회'로 되어 있으나, 횟수 표기의 오류로 인해 사실상 84회 분량에 해당한다. 이후 작품 인용 시 본문이나 각주에 오류와 관계없이 해당날짜와 연재횟수를 병기하거나, 연재횟수만 따로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동아일보' 연재본의 표기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오되, 가독성을 고려해 일부 자음 표기방식이나 띄어쓰기는 다소 수정하였다.

있는 작품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직업인’과 ‘예술인’ 사이에서의 정체성을 ‘생활감각’, 즉 리얼리즘의 창작세계관으로 엮어내려는 시도는 『진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본격소설’을 지향하면서도 ‘통속소설’의 일종인 신문연재소설의 창작에 임하는 양가적 태도의 극복을 위한 고심의 흔적이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예술미’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임화는 저 유명한 『통속소설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진의 新聞小說이란 것은 其實 新聞에 發表되였다 뿐이지 本質에 있어선 藝術小說이라 할 수 있었다. 예전 每申이나 東亞에 실리던 春園의 小說을 비롯하여 想涉, 憑虛 或은 그 뒤의 諸 作家의 小說이 다 新聞을 長篇小說 發表의 唯一의 機關으로 생각해 왔었고, 事實 朝鮮文壇(乃至는 出版界)의 現實이 長篇을 原稿채 印刷할 能力이 없었고, 雜誌가 그것을 堪當해나가기 어려웠던 만큼 實際 朝鮮 長篇小說은 新聞에 依據하여 發展해온 것이 다.³¹⁾(강조: 인용자)

그의 지적에서 새겨보아야 할 것은 1930년대 이전까지의 신문연재소설이란 김말봉과 같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통속소설’이라기보다 ‘예술소설’에 가깝다는 언급이다. 여기에는 물론 1920년대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 소설을 연재하던 염상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임화는 『통속소설론』에 앞서 『본격소설론』과 『세태소설론』을 쓰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본격소설’이란 세태소설이나 심리소설과는 다른 것으로 소위 ‘성격(말하려는 것)’과 ‘환경(그리려는 것)’의 분열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이다.³²⁾ 이 점에서 보자면 결국 생활과 현실을 “문자로 묘사하고 사상과 의지로 주장”할 것을 내

31) 임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p.396.

32) 임화, 위의 책, pp.341-386 참고.

세운 염상섭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본격소설'의 관점과 임화의 관점은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진주』의 경우는 앞서 발표된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보다 더욱 '통속화'된 경향을 보여주며, 흥미위주로 서술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³³⁾ 하지만 위와 같은 임화의 지적에 따르면 1920년대 염상섭의 소설은 여전히 본격적인 의미에서 '통속소설'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문제의 지점이다. 상반된 두 관점을 고려해볼 때 과연 『진주』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실상 통속과 본격의 사이, 그 어디쯤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논자에 따라 '과도기적 형태' 또는 '아속의 절충'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하나의 작품 안에 함께 공존하는 '통속성'과 '예술미'를 잇는 연결고리를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한다. 본고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염상섭의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작가적 인식 끝에 도달한 '리얼리즘' 정신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서두에 언급한 바대로 '문학저널리즘'에는 작가·작품·매체·독자 사이의 긴장관계가 반영된다. 창작주체인 작가로서는 한편으로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소시켜 줄 나름의 창작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염상섭의 경우 '기자' 경험에서 얻은 '생활감각'과 그에 따른 리얼리즘적 태도에서 이를 발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염상섭이 『진주』에서 펼쳐놓은 '생활감각'은 네 가지 방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유연애'에 얽힌 풍속과 세태 현실이며, 둘째는

33) 시라카와는 『진주』의 경우 전작인 『너희들』보다 더욱 신문연재 소설 특유의 통속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약해두고 있다. ① 'xx운동'이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를 암시하거나, 애육 스캔들 등을 축으로 한 스토리 전개. ②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등장인물들의 특이한 행동. ③ 등장인물들이 선인과 악인으로 확실하게 이분되어 있는 점. ④ 실생활에는 쫓기고 있지 않는 듯한 '고등유민(高等遊民)'적인 청춘 남녀가 많은 점. 시라카와 유타카, 『한국근대 지일작가와 그 문학 연구』, 깊은샘, 2010, p.116.

계급관계에 얽힌 부조리한 사회현실이다. 셋째는 ‘직업인(기자노릇, 생활인)’의 감각에서 발견되는 소위 ‘목구멍 송사’와 관련된 현실(근대적 자본주의 현실)이며, 넷째는 전근대적 가치관과 이념의 잔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진주』의 전체 스토리 역시 이렇듯 네 방면의 감각이 서로 교차함으로써 구성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첫째와 넷째에 관련된 이념과 성격이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의 대결 양상을 통해 현실의 타락상을 고발·비판하거나, 도덕적·윤리적 시민의식의 강조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 작품의 주된 특징이다.

한편으로 『진주』는 주로 유학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소위 인텔리 ‘신청년’들을 통해 당대의 근대적 사상 및 연애담론이 지닌 명암 역시 드러내고 있다. 그들 중 단연 핵심인물이자 작품 속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은 경성제대 예과생인 20세 청년 ‘김효범’이다. 또한 ‘효범’과 작중에서 소위 “오각련애”의 스캔들을 일으켜 당시 자유연애에 얽힌 세태를 보여주는 인물은 22세의 일류 피아니스트 ‘조인숙’과 인천의 ××학교 교원으로 있던 21세의 ‘정문자’라는 여성이다. 이들 중 ‘인숙’은 ‘효범’의 매부인 ‘진형석(진번호사)’의 집에 양녀처럼 얹혀사는 인물로, 결국 ‘진형석’의 계략에 넘어가 인천의 미두대왕(米豆大王) ‘리근영’이라는 속물적 인물에게 첩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인숙’과 한 때 정을 나누었던 ‘효범’은 이를 간파하고 사태를 막아보려 매부인 ‘진형석’에 대적해보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폐병’을 얻어 한편으로 그에 대해 호감을 가진 ‘문자’와 함께 돌연 떠난다. 이후 두 사람은 ‘인숙’과 ‘리근영’의 결혼식 날 참석하여 일장 연설을 한 후 그대로 인천 앞바다로 나가 정사(情死)를 시도한다. 이처럼 『진주』는 근대적 사상, 그리고 일종의 영웅주의적인 도덕심을 지닌 신청년 ‘효범’과 구시대의 낡고 속물적인 인간군상과의 대결이 소설의 큰 축으로 버티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한편으로 유학청년들의 애정문제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다시 위의 네 방면에서 제기된 생활감각으로 돌아가서, 염상섭은 때로는 '통속성'의 관점에서, 때로는 '사상'과 '의지'를 담아냄으로써 리얼리즘적 태도를 견지하며 그가 추구하던 '예술미'를 구축하려 한다.

“—파는 놈두 파는 놈이지만 사는 놈두 그놈이 다 매부 솜씨에 거저 어수룩하게 내노을리는 만무할게지? 무슨 병집을 잡어서든지 단돈 몇천원이라두 걸리는 게 업고서야 그럴리는 만무다. 안인적엔 인숙이하구 지나는 말한마디만 건네도 두 눈에 쌍심지가 빠치더니 요새는 개, 닭 좃듯이 뿌리통뽀루통해하는 것을 보아도 알쫌다. 그러나 차작엽서에 샌통그러져 가지고 폐식이니 깨몽동이니 하는 년도 신세 다 마친 년이지! 그때워 년이 무어? 런애? 예술? 흥! 아모리 세상이 탈세라두……”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불쑥 자그 누의가 이리로 쇠집 올 때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모리 내 누의라두 오롱이조롱이다 여덜달만에 사태를 낫기에 망정이지 그 따위놈의 씨는 바닷다가 무엇하게! …(중략)… 하지만 내 누의는 그때 형편이 동경 아니할 수도 업섯다고두 할 만하지 사십원 월급에 일곱식구가 턱을 치마치고 현장바라기처럼 안것스니 어린녀자의 마음에…… 그때에 내가 이만 낫세엇드래두 그러케는 안되엇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아주 기생이나 갈보가 되엇든 편이 적어도 량심상 훗신 나엇을 것이다.³⁴⁾(강조:인용자)

인용문은 효범이 매부 진형석의 계락을 눈치 채 후 사건의 연유를 짐작하고 비판을 가하는 대목이다. 효범의 생각을 통해 인텔리 신여성인 지닌 '연애'나 '예술'이니 하는 것에 대한 동경의 세태, 나아가 그 허구성을 당대 사회의 한 단면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손위 누

34) 12회, 1925. 10. 28.

이의 경우에 비춰져 물질적 조건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 한계 내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양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진주』의 서술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진형식으로 대표되는 악한(惡漢)에 대한 고전적 비판과 응징보다, 1920년대의 근대적 시대상을 좀 더 가깝게 보여주는 연애와 결혼,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통속적 서사이다. 그것은 당대 독자들의 흥미요소를 잃지 않게 하면서도 객관적 현실 위에 조직된 작가의 “생활 감각 및 생활의식”을 전달하는 서술방식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자들로 하여금 소위 권선징악의 통렬함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하고 돈에 팔려가는 여성의 모습에서 신파에 기댄 애절한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통속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이다. 하지만 염상섭은 이러한 독자들의 통속적 기대와 욕망을 끝내 기대만큼 채워주지는 않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까지도 ‘진형석’은 여전히 부와 명예를 잃지 않으며, 간간히 신파적 자극을 제공하던 ‘조인숙’은 결국 물질적 조건을 쫓아 ‘리근영’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다.

『진주』가 이처럼 곳곳에서 대중독자의 실질적인 욕망과 어긋난 결말을 구성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작품은 임화의 지적처럼 김말봉과 같은 본격적인 의미의 통속소설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문학저널리즘’의 관점에서 형성된 작가 염상섭과 독자들 사이의 긴장관계는 사실상 일방적인 측면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된 부분에서와 같이 독자들은 염상섭이 그려 놓은 세계 내에서 흔히 통속소설 일반이 제공한다고 여기는 ‘쾌미(快美)’를 느끼기보다, 생활감각에 얽힌 네 방면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소설에서 일류 피아니스트로 그려지고 있는 ‘조인숙’의 경우 실상 효범과 정을 나누고 그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에는 ‘리근영’이 지닌 재력에 기대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인숙은 신파적 자극을 독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하지 못하며, 한편으로 물질(돈, 자본)에 끌리어 사랑과 예술에 대한 순수함마저 잃어버린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게 볼 때 당대의 연애담론 내에서 근대적 사랑이나 예술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졌던 독자들 역시 미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도 전에 근대가 조직한 세계의 허구적 실체를 불현듯 인식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진주』에서 염상섭이 건설해놓은 이러한 세계는 작품 내에서 사실상 좀더 직접적으로 자주 표현된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미 계집을 팔고사는 세상이 아님닛가? 갑도 따지지 안코 기한도 덩하지 안코 남자의 민적의 한구통이를 메여준다는 혼서지 한장에— 문서 한장에 팔려가거나 만원 아니라 만전에 팔려가거나 팔고사기는 일반이 아님닛가? **정복(征伏)압박(壓迫)이란 것은 시간(時間)과 비례하여 훌륭한 도덕(道德)이 되고 생활의 형식(生活形式)이 되지 안습닛가? 그 리하여 사람다운 량심의 그림자는 영원히 스러져버렸습니다.** …(중략)… 특터 노코 보면 사내나 계집이나 누가 감히 나는 팔려가지 안는다고 양바퓌는 소리를 하겠습닛가. 만원을 빚지 안는다고 만원에 팔려가는 인숙이를 웃는 자가 그 누구입닛가 효범씨! 그러케도 미우십닛가? **그러나 죄악과 눈물과 거짓과 억울이 몇천년 몇만년동안 한데 엉기인 사람의 생활이라는 큰바위덩이 위에서 그래도 판다산다하면서 귀어올라가다가는 밋그러저 땡굴고 땡굴고서는 또 허위적어리는 이 인생들이 우습고도 기막히며 미웁고도 불상하지 안습닛가?**³⁵⁾(강조: 인용자)

리근영이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진형석의 집을 찾았다가 효범에게 된통 당하고, 인숙 역시 다른 이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난 후 그녀는 장문의 편지를 효범에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 위의 인용은 그

35) 42회, 1925. 11. 27.

중 한 대목으로 인숙은 자신의 입장에서 효범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여기서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와 생활 현실이 지닌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다. 이러한 서술에는 생활인으로서 물질적 조건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교환관계를 만들어 내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현실이 담겨있다. 또한 그러한 자본주의적 조건이 만든 계급관계의 부조리함이 ‘정복압박(征服壓迫)’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듯 유독 『진주』의 서술에 이용되는 대화나 편지에는 현실 세대에 대한 한 마디의 요약된 비판과 그에 따른 도덕적·윤리적 양심의 회복에 대한 대중독자를 향한 호소성 짙은 주장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흔히 입화가 지적한 ‘세대소설’의 일부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작가의 교조적 이념이 계몽적 논설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달리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통속적 소재에 얽힌 세대만을 소위 ‘순객관’의 관점으로 펼쳐놓는 것이 아닌, 생활현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한편으로 시민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후반부의 기자 ‘신영복’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작가의 이러한 고발 및 비판의식은 절정에 달한다.

“그까진 진형석이란 놈이 누구요? 한국시대에는 ××사건에 매국검사(賣國檢事)라고 꽤치고 나섰든 놈이요 합병 후에는 고리대금업 변호사로 세상이 다— 이는 일인데 그래 그 놈을 신사라고 가만 내버려둔단 말이요? 신사별(紳士閥)끼리는 리해후척이 가트니까 옹호도 하겠지만 나는 신문기자의 직책으로 어느때든지 써노코야 말테요. 권고사직(勸告辭職)을 당하기 전에 사직청원서를 간부에게 제출하고서라도 쓰고야 말겠이요. 신사라는 가면 쓰고 인육장사를 하거나 음약가리는 간판 뒤에 숨어서 밀매음을 하거나 유망한 청년을 유인해서 타락을 식혀도 신문은 신사별의 옹호만 하고 안젓으면 고만이란

말이요?”³⁶⁾

『진주』의 후반부에 효범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시켜 마무리 지은 것은 ××신문 사회면에 실린 신문기사였다. 진변호사가 사라진 인숙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수색원을 내면서 사건이 알려지고, 직전의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인숙과 진변호사 일행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기자 ‘신영복’이 이를 기사화한 것이다. 기자 신영복을 통해 구한국시대 청년검사를 지내며 ××사건에 매국검사(賣國檢事)로 알려진 인물이자 식민지기 동안에는 고리대금업 변호사로 행세하던 진형석을 단죄해야 함을 언급한 것은 앞서 밝힌 작가의 생활감각이자 리얼리즘 정신의 소산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음 ‘신영복’이 조선문신문인 ××신문의 사회면에 실은 “오각련애” 운운하는 스캔들 기사에는 “마치 이야기책”(57회)처럼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지레짐작과 추측을 통한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작가의 판단은 다소 부정적이다. 물론 신문사 간부와 사장의 반대로 ‘진형석’에 대한 비판 기사는 끝내 신문에 실리지 못하지만, 작중 기자의 관점에 포착된 두 기사거리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저널리즘’은 객관적 사실을 전하고, 의견이나 해석이 가해질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부정한 인물에 대한 단죄와 같이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분명 염상섭이 기자 노릇을 지내며 쌓은 자신의 저널리즘에 대한 신념을 ‘신영복’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인데, 그러한 신념이 ‘문학저널리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에서는 주로 객관적 관점에서의 묘사를 통해 당시 세태의 사실적 전달에 집중한다면, 그에

36) 58회, 1925. 12. 15.

관한 고발이나 비판은 항시 정의와 도덕, 윤리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태에 대한 문자 묘사(작중 신문보도)를 하되, 작가가 궁극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대정신 및 생활감각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과 해석의 개진이었던 것이다.

실상 ‘기자 신영복’과 관련된 신문기사사건은 작품 후반부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긴 해도, 그 자체가 『진주』의 전체적인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영복의 입을 통해 “신문기자의 량심”이나 “공정한 언론기관”(61회) 등을 거론하는 장면은 갑작스레 끼어든 에피소드와도 같으며, 일부 매체에 소속된 이들이나 그에 관심을 가진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이 61회부터 63회까지 3회분에 걸쳐 ‘신영복’을 통해 “권력과 금전의 야합” 문제나 “기자의 공정한 사명과 신성한 직능”(62회)과 같은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마치 “주의자(主義者)”(63회)처럼 일장 연설로 늘어놓는 것은 역시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인물들로 인해 타락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 언론 정의(正義)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여길 수는 있으나 그리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다. 반면 당시로선 사회적 유명 인사였던 신문사 사장 태추관과 안남작, 진형석 변호사와 미두대왕 리근영 같은 이들의 소위 야합과 부정, 간통과 같은 내용은 꽤나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흥미로우면서도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단죄하여 “사회덕으로 응증”(62회)함으로써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현실타파(現實打破)”(63회)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단죄는 작품 속에서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위 권선징악의 통쾌한 결말을 기대하던 독자들의 욕망은 작품을 읽어나가는 틈틈이, 그리고 결말에 이르러서 마침내 작품의 주된 소재였던 ‘통속적’ 재미로부터 벗어나 현실세태

에 대한 비판을 향해 '재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감각(感覺)의 세계’를 넘어서

이상과 같이 통속성을 넘어 리얼리즘적 태도로 본격문학의 ‘예술미’를 구현하고자 한 염상섭의 시도는 결국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그가 이 시기 작품 속에서 담아내고자 한 것은 통속의 세계와 현실 그 자체의 객관적 묘사를 통한 흥미유발의 요소라기보다 그의 사상과 의지를 반영한, 즉 리얼리즘의 정신을 통한 비판적 시각이었다. 본격문학을 지향하던 당시의 그로서는 신문연재소설을 써냄으로써 통속소설의 길로 고민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내외부적 비판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진주』의 막바지에 기록된 효범의 유서에는 ‘순결’에 대한 자기변명이나 비호를 위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달리 보면 누군가에게는 ‘통속소설’ 작가로 변절하여 ‘순결’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춰지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변호라고도 볼 수 있다. 문자와 마지못해, 그러나 다소 흥분된 감정으로 ‘포옹’과 ‘키스’를 나누었을 뿐 그 이상의 육체적 관계는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신문에 난 김흔관계”(86회)라는 두 사람의 스캔들에 대한 적극적 해명으로 죽은 이후 자신들의 시체를 총독부 병원으로 데려다가 해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효범의 태도는, 통속적 소재를 부득이하게 취해 신문연재소설을 쓰고 있지만 ‘본격/순수문학’에 대한 이상적 지향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변호하고 해명하는 염상섭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추후의 일이지만 조용만과 같은 후배문인들에게 “완전히 한 개의 통속소설 작가로 전환하여 버렸”³⁷⁾다는 혹평까지 듣게 되는 다음에야 이러한 그의 변론이 이어지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하다. 작중 도덕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로, 그리고 연애나 사랑, 예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던 ‘효범’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으로부터 염상섭의 문학예술을 대하는 이상적 태도 역시 드러나는 것이다. “순결에 대한 숭배적 감정(崇拜的感情)”(85회)을 가진 문자 역시 효범과 더불어 현실 세계 너머 염상섭이 건설한 이상 세계 안에 거거하는 조개 속 ‘진주’의 현현(顯現)인 셈이다. 그들이 서로에 대해,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해 지닌 순일(純一)한 감정이야말로 진창에 묻힌 조개 속 ‘진주’처럼 진귀하고도 값진 것으로 염상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³⁸⁾ 그리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당대의 인간군상은 그야말로 ‘오감’에 사로잡혀 현실 속 쾌락이나 자극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감각(感覺)의 세계”(81회) 안에 머문 자들로 비춰져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설 작가이자 ‘예술인’으로서의 ‘이상적 감각’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과, 기자이자 ‘생활인(직업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생활감각’ 아래 솟아난 정체성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염상섭은 작품 『진주』에서 리얼리즘 정신을 통해 틈틈이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그의 시도가 작품 속에서 마지막까지 냉철한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결말에 이르러 효범과 문자가 바다로 나가 정사(情死)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미적 세계, 즉 사랑과 예술, 정의

37) 조용만, 『胸襟을 열어 先輩에게 一彈을 날림-염상섭 씨에게』, 『조선중앙일보』, 1934. 6. 27.

38) 이런 관점에서 ‘진주는 주엿스나’라는 제목의 의미를 따져 볼 수도 있다. 작중 두 인물의 정사(情死) 시도는 결국 온몸을 던져 ‘진주’와도 같은 순결과 순수함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창 속 현실 세계를 향한 자조나 한탄을 보여주려 한 것인 셈이다. 물론 “도야지 허깨비 무든 진주”(44회)라는 작중 표현으로부터 ‘돼지에 진주(목걸이)’라는 속담의 뜻인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등의 관념적 순수에 대한 이상적 지향을 끝내 놓아버리지 못하고 '현실(감각의 세계)'로부터 초월하려는 데서 온 결과다. 물론 효범과 문자의 죽음은 단순한 현실초월적 '도피'라기보다 '이상(세계)'을 향한 동경의 극단으로 나아간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연애와 사랑, 문학과 예술을 끝내 순수의 세계에 놓아두려 한 염상섭 역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힌 세속적 연애와 사랑, 그리고 동경에 놓인 통속소설의 집필 행위는 그야말로 피하고 싶은 '감각의 세계'였던 셈이다. 따라서 '순수/예술/본격소설'에 대한 동경 아래 형성된 염상섭의 초기 신문연재소설과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통속'과 '순수' 양측을 한꺼번에 품어 안은 형국인 동시에, 이상향으로써 '순수'에 대한 강렬한 미련을 남긴 채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권영민 외 편, 『염상섭전집』1·9, 민음사, 1987.
 염상섭, 『진주는 주었스나』, 『동아일보』, 1925.10.17.~1.17.
 임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I·II·III, 소명출판, 2014.

2. 논문 및 단행본

-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85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pp.9-48.
 공종구, 『염상섭 초기소설의 여성의식』, 『한국언어문학』 제7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pp.391-415.
 권동우, 『예술과 연애, '순수'에의 동경-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제27집, 동아인문학회, 2014, pp.137-169.

- 김경수, 『염상섭의 통속소설 연구-『이심』, 『백구』, 『모란꽃 필 때』를 중심으로』, 『서강어문』 제11집, 서강어문학회, 1995, pp.177-223.
- _____, 『현대소설의 형성과 스캔들-홍보의 <진주는 주었으나>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43집, 국어국문학회, 2006, pp.357-378.
-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1998.
-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이광수,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시라카와 유타카, 『한국근대 지일작가와 그 문학 연구』, 깊은샘, 2010.
- 이보영, 『난세의 문학-염상섭론』, 예림기획, 2001.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 조남현, 『갈등론으로 본 염상섭의 <사랑과 죄>』, 김종균 편,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pp.45-68.
- 조미숙, 『『진주는 주었으나』의 이야기 방식과 근대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4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11. 4, pp.309-339.
- 최미진 · 임주탁,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 12, pp.245-291.
- 최혜실,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국어국문학』 제108권, 국어국문학회, 1992, pp.209-225.
-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 제8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pp.175-208.

Abstract

A Recognition of Yeom Sang-seop's Early Newspaper Serial Novels
and 'Literary Journalism'

— Focusing on 『Though Gave the Pearl』 —

Kwon, Dong-Woo

In spite of a number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something that isn't yet clearly explained in Yeom, Sang-seop's literary world, is about the 'popularization' tendency found in a series of newspaper serial novels ranging from 『Mansejeon』 to 『Three Generation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free love' idea of 'new youth' of the time, which is commonly regarded as the key of 'popularity' in a series of newspaper serial novels and 'sensation' of the writer, who selected the relevant customs and social conditions as materials for his works. Sensation of Yeom, Sang-seop for newspaper serial novels in the early and middle 1920s was a product created by his concern about 'journalism' that represents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as an intellectual writer and his life as a reporter. Based on this,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Yeom, Sang-seop's newspaper serial novels of this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journalism', which is little different from 'journalism literature' that was recognized as a synonym of 'popular literature'. A kind of strained relationships among 'writers, works, media and readers' is reflected in the concept of 'literary journalism' and especially,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at a writer's world outlook and methodology of creation are formed when there are multiple influences of a writer's understanding of media, media's requirements for a writer and a writer's concern about readers(desires) caused by a combination of 'literature' and 'journalism'.

Key Word : Yeom, Sang-seop, Newspaper Serial Novel, Popularity, Media,
Journalism, Literary Journalism

권동우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yawwn3@naver.com

이 논문은 2016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